

아~ 기다리던 '올스타' 박준표 컴백



첫번째 라이브 피칭 이어 오늘 20구로 실전감각 확인
빠르면 주말 KIA-NC전 투입...올스타 레이스도 경쟁
치열한 5강 싸움 '천군만마' ... "팀 가을잔치 진출 돕겠다"

KIA 타이거즈의 '올스타' 박준표가 복귀를 위한 마지막 테스트에 나선다. KIA 박준표가 11일 함평-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힌다. 볼펜 핵심으로 KIA의 승리를 지켜왔던 박준표는 웨이트 도중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8월 4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8일 라이브 피칭을 통해 20개의 공을 던졌던 박준표는 11일에도 20구로 실전감각을 확인한다. 이 경기를 통해 박준표는 빠르면 주말 NC와의 원정경기에 합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귀를 앞둔 박준표는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영광스러운 순간도 맞았다. 올스타 팬투표를 통해 나눔 올스타 중간투수 부문 1위를 차지하면서 이날 진행된 KBO 올스타 시상식에 참가한 것이다. 처음으로 올스타의 영광을 안은 박준표는 터커·김선빈(이상 KIA), 페르난데스·김재환(이상 두산)과 'KBO리그의 별'로 시상

식에 자리했다. 박준표는 "올스타에 선정돼서 기분이 좋았다"며 "팬들이 뽑아주신 거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다. 유니폼에 올스타 패치는 달았는데 경기를 안 해서 아직 실감은 안 난다. 시합 뛰어야 느낄 것 같다"고 웃었다. 또 "볼넷 안 주고 곧바로 승부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주신 거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올스타 선정 소감을 밝혔다. 기다렸던 그라운드에서 다시 맘을 흘리고 있는 것도 박준표에게는 큰 기쁨이다. 박준표는 "다시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니까 좋다.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다"며 "(재활을 하면서) 애들이랑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랬었다.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야구를 안 보려고 해도 보게 되더라. 우리랑 붙을 팀도 많이 보고 있고, 가서 폐 안 되게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팀을 꾸려가고 있는 윌리엄스 감독은 물론 '마무리'로 목직한 책임감을 안고 있는 전성현에게도 박준표의 복귀는 간절하다. 박준표는 "상현이랑 (홍)상삼이 형이 빨리 오라고 했다. 열심히 해서 빨리 간다고 했다"고 웃었다. 컨디션은 좋다. 오랜만에 소화한 라이브에서도 박준표의 감은 여전했다. 박준표는 "오랜만에 던졌는데 불안한 것은 없고, 감각도 괜찮았다"며 "라이브 던졌고 (내일은)타자를 상대하는 거니까 볼 많이 안 던지고 스트라이크 던져서 맞더라도 빠른 승부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부상 없는 시즌이라는 박준표의 목표는 아쉽게 무산됐다. 중요한 순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남은 5강 싸움에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각오다. 박준표는 "항상 부상 안 당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쉽다. 팀 승리, 팀이 먼저인 것 같다. (재활하면서) 경기가 안 줄어들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며 "볼펜 투수니까 주자 있을 때, 이기는 방향으로 열심히 던지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번도 포스트시즌에 뛰어나지 못했다. 가을 잔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팬들이 TV로 많이 응원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잘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주말 NC전에 외국인 원투펀치

KIA, LG전 우천순연에 선발 조정...임기영 → 브룩스 → 가농

비로 KIA 타이거즈 마운드가 조정됐다. KIA는 지난 9일 LG 트윈스와 예정됐던 경기를 비로 치르지 못했다. 경기 시작 10분 가량을 남겨두고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가 취소된 터라 선발 출격을 준비했던 가농의 등판 일정이 조정됐다. 10일 일단 양현종이 출격해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를 치렀다. 윌리엄스 감독은 10일 두산과의 경기 전 "(잔날)가농이 몸을 두 번 풀지는 않았다. 21개 정도 던졌

다고 하는데 하루 쉬고 바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토요일 선발로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현종에 이어 임기영이 원래 준비했던 날짜대로 순서대로 등판한다. 브룩스도 준비했던 13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나선다. 대신 이민우의 날짜가 미뤄졌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민우가 화요일(15일) 선발로 나올 예정이다. 주말에는 가농과 브룩스가 던지

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올 시즌 KIA는 보호차원에서 4-5선발 이민우와 임기영의 이닝을 조절해가면서 마운드를 꾸려가고 있다. 비로 선발 로테이션이 조정되면서 이민우에게 넉넉하게 휴식을 주게 된 KIA는 주말 '1위'와의 NC전에 외국인 원투펀치를 투입, 5강 싸움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민우는 다음 주 상대적으로 수월한 하위권 팀을 연달아 상대하게 될 전망이다. 15일 SK 와이번스와의 승부가 예정되어 있고, 20일에는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가 잡혀있다. 올 시즌 이민우는 한화전 세 경기에 나와 모두 승리를 챙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GA 올해의 선수'를 고르시오



후보 5명 선정 ...신인상은 4명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9-2020시즌 올해의 선수 후보에 더스틴 존슨과 저스틴 토머스, 콜린 모리카와, 웨브 심프슨(이상 미국), 윤 램(스페인) 등 5명이 선정됐다. PGA 투어는 10일(한국시간) 올해의 선수 후보 5명과 신인상 후보 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PGA 투어 올해의 선수와 신인상은 2019-2020 시즌에 10개 이상 대회에 출전한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올해의 선수 후보로는 페덱스컵 챔피언에 등극한 존슨과 삼금왕 토머스, 평균 타수 1위 심프슨이 이름을 올렸고 2019-2020시즌에 유일한 메이저

대회로 열린 PGA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모리카와도 '복병'으로 주목된다. 또 플레이오프 3개 대회 가운데 하나를 제패하며 삼금왕과 평균 타수, 세계 랭킹 모두 2위인 램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해 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선정됐다. 올해 승수와 삼금, 평균 타수 순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수상자를 정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 올해의 선수로는 토머스가 수상 영예를 안았다. PGA 투어 올해의 선수와 미국프로골프협회 올해의 선수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일치하다가 지난해에는 PGA 투어 올해의 선수 매길로이, 미국프로골프협회 올해의 선수 브룩스 컵카(미국)로 엇갈렸다.

신인상 후보로는 해리 힉스, 매버릭 맥닐리, 스킵 세플리(이상 미국),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에는 아시아 국적 최초로 임성재(22)가 신인상을 받았다. 올해 신인상 후보 가운데 페덱스컵 순위가 가장 높은 선수는 5위 세플리다. 맥닐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교포 선수 대니얼 강(미국)의 남자 친구로 알려진 선수다. 수상자 발표 날짜는 추후 정해진다.

/연합뉴스

'선행왕' 추신수, 클레멘테상 텍사스 후보에

통 큰 기부와 선행으로 사랑받는 추신수(38)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대표로 2020년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 수상 레이스에 참여한다. 추신수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홈경기를 벌이기 전 열린 이른바 '후보 추대식'에서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과 동료의 축하를 받았다.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은 1972년 나카라과 지진 피해 구호물자를 싣고 가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로베르토 클레멘테(1934~1972년)를 추모하는 뜻에서 제정된 상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선행으로 사회에 공헌한 선수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해마다 미국시간 9월 9일 로베르토 클레멘테 데이로 맞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저마다 클레멘테 상 후보를 1명씩 발표한다.

/연합뉴스



지난 9일 KIA 박준표가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윌리엄스 '엄마의 이름으로'

US오픈 테니스 女 단식 4강 진출...아자란카와 '슈퍼맘 대결'

세리나 윌리엄스(8위·미국)가 스페타나 피롱코바(불가리아)와 '슈퍼맘 대결'에서 승리하고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40만 2000달러) 여자 단식 4강에 올랐다. 윌리엄스는 1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5회전(8강)에서 피롱코바에 2-1(4-6 6-3 6-2)로 역전 승했다. 이로써 자신이 출전한 US오픈에서 11회 연속 4강에 진출한 윌리엄스는 2014년 이후 6년 만의 이 대회 정상 탈환, 2017년 호주오픈 뒤 4년 만의 메이저 대회 우승에 2승만을 남겨뒀다. 출산 뒤 2018년 상반기에 복귀한 윌리엄스는 메이저 대회 결승에 4차례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특히 US오픈에서 최근 2년 연속 준우승에 그쳤다.



윌리엄스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마거릿 코트(은퇴·호주)가 보유한 메이저 대회 여자단식 최다 24회 우승 타이 기록을 쓴다. 윌리엄스는 2017년 9월 딸을, 피롱코바는 2018년 4월 아들을 출산해 이날 경기는 '엄마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살짝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1세트를 내 준 윌리엄스는 2세트부터 특유의 파워를 살려 승기를 가져갔다. 마지막 세트 첫 게임 4번째 듀스 상황에서 15번의 랠리 끝에 게임포인트를 따낸 것은 윌리엄스 승

리의 분수령이 됐다. 피롱코바는 힘에 부쳤는지 한 동안 코트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윌리엄스는 11일 열리는 4강전에서도 '엄마 맞대결'을 펼친다. 이어진 경기에서 빅토리아 아자란카(27위·벨라루스)가 엘리시 메르텐스(18위·벨기에)에게 2-0(6-1 6-0)으로 이겨 윌리엄스의 다음 상대로 결정됐다. 2016년 12월 출산한 아자란카는 그 뒤 메이저 우승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4강 진출은 출산 뒤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다.

/연합뉴스